

한 여름밤 공원에서 음악감상 어떠세요?

풍암공원 등 문화행사 풍성

클래식·트로트 장르도 다양

한여름밤 야외 공연 나들이. 풍암호수공원, 쌍암공원, 중외공원 등 광주 지역 곳곳에 자리한 공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문화 명소 역할도 하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공원에 둘러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올 한해 매월 첫번째 주 수요일 풍암호수공원에서 '사랑의 향연' 공연을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7시 열리는 공연에는 아코디언(김민호 하모니), 색소폰(박용주), 남도민요(최혜정·마서란·양정연), 트로트(김상원), 7080 통기타(김동규), 벨리댄스(하리벨리), 마술(엘비스매직), 희극(김상기) 등이 선보인다.

북구 중외공원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두번째 주 토요일 음악회가 열린다. 4년 전 꾸려진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음악회이다.

오는 13일 오후 7시 열리는 6월 공연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하모니카 연주 '반달'로 문을 연다. 이어 하모니카 3중주(백귀례·조영애·김지아)와 함께 남성 4중창단(이형기·이준용·손승남)이 '향수', '푸니쿨라 푸니쿨라' 등을 들려준다. 또 색소폰 앙상블(조현·윤주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매월 둘째주 토요일 진행하는 중외공원 야외음악회 모습.

승)의 'Loving you' 'Danny Boy', 주상훈·유준상으로 구성된 '달달한 밴드'의 '달의 물라', '부치지 않은 편지' 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주권기씨가 장식한다.

광산지역 공원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수완호수공원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음악회가 열린다. 6일 오후 7시30분에는 권혁찬의 노래세상이 진행되며 13일 오후 4시에는 힐링밴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문화 공연과 수완 호수의 숲 공연이 펼쳐진다. 또 오는 21일에는 수완색소폰과 함께하는 음악나들이가 준비돼 있다. 운남근린공원에서는 매주 일요일(첫째 주 제외) 오후 7시 '올림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광산 지역 공원에서 다양한 공연이 동시에 열린다. 운남근린공원에서는 망울리우리문화연구회의 풍물놀이 공연(오후 2시)과 햇빛아코디언동호회 공연(오후 7시)이 열리며 수완호수공원에서는 문화나무 음악회(오후 6시)가 시

민들을 찾아가고. 또 쌍암공원에서는 첨단골 열린음악회 주최로 '호수공원, 한밤의 꿈' 공연이 펼쳐진다.

그밖에 2006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광주음악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남구 노대동 물방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5월 공연을 광주민중항쟁을 기억하는 음악회와 토크쇼로 꾸민 광주음악회는 오는 20일에는 '뉴 보이스 초청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예재단 찾아가는 영화관 인기...해변영화관도 운영

하루 종일 볼 것은 너른 들판과 TV가 전부였던 전남지역 시골 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간다.

전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종경)은 영화관이 없는 시·군을 찾아가 최신 영화를 선보이는 '찾아가는 영화관'을 오는 12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대폭 늘리고 영화상영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상영작도 최근까지 극장에서 상영됐던 '깁스맨 : 분노의 질주' '조선명탐정' '세시봉' '국제시장' '남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등 최신영화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전남 도내 영화기반시설이 부족한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예회관, 군민회관 등 지역 내 문화공간을 활용해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엔 전남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올해는 관람 목표인원을 1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는 수요조사를 지난달 29일 화순



(도곡면 누리관) 실시한 이후 신안(오는 6월 6일·지도읍 장터), 영광(6월12일·예술의 전당), 함평(6월24일·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담양(6월27일·담양문화회관), 신안(7월6일·신의조) 등 오는 8월까지 27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름철에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

과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유명 해수욕장 등에서 해변영화관도 8월 한 달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일정은 재단 홈페이지(www.jncf.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1-280-58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해양문화재단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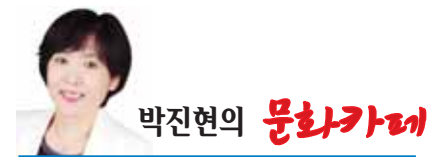
20일까지 마린스쿨 모집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소장 소재구)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마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린스쿨은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미래 꿈나무를 양성하고 기획된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오는 7~10월 진행된다.

수중고고학자, 문화재보존과학자, 전통선박공학자, 해양역사학자, 해양민속학자, 학예사 등 해양문화재 발굴 및 전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의와 현장체험 학습을 함께 진행한다.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하이틴! 마린스쿨'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중학생 대상 '꿈틀꿈틀 마린스쿨'은 10월8~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에 진행된다.

과정을 마친 후에는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 청소년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과 봉사활동 내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문의 061-270-2044. /김정인지자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를 찾았다. 템스강 동쪽에 자리한 이스트엔드는 뮤지컬의 본고장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즐비한 웨스트엔드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둘러본 이스트엔드는 더 이상 런던의 뒷골목이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중심부에 자리한 스트리트포드는 과거 슬럼가의 흔적을 찾기 힘든 '핫 플레이스'였다. 2012 런던 하계올림픽의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서면서 지역 전체가 '올림픽 효과'를 누리고 있는 덕분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런던 올림

프를 부르던 그가 후렴구인 '나~나나나~' 부분에서 무대 중앙으로 나와 8만 여 관중의 '매창'을 유도한 장관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내 주위엔 '헤이 주드'를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날'이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폐막식은 단순한 의식행사가 아니다. 개최지의 과거와 역사는 물론 그 나라의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을 집약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3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감동의 무대를 연출할 수 있었던 런던의 힘은 다름 아닌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유아 샤이닝(U are Shinning)

픽 이후 전 세계에서 스트리트포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짧은 취재일정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했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선 폴 매카트니의 '헤이 주드'(Hey Jude)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사실 런던 올림픽의 개·폐막식은 문화강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세기의 이벤트'였다. 특히 '경이로운 영국'(Isles of Wonder)를 주제로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편의 서사시처럼 그려낸 개막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연출을 맡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감독 데니 보일은 총 2700만 파운드(약 480억 원) 예산으로 셰익스피어, 비틀즈, 007 제임스 본드, 미스터 빈, 헤리포터 등 영국산(産) 아이콘들을 특유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 고풍적 문화개막식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개막식의 엔딩 무대를 장식한 팝의 전설 폴 매카트니의 등장은 압권이었다. 피아노를 치며 '헤이 주

해 외국언론으로부터 '최악의 개막식'이라고 혹평을 받은 인천 아시안게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23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스토리' 보다는 싸이, EXO 등 한류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컬처 버시아드'(Culture와 Universiad의 합성어)를 내건 2015 광주 하계U대회 개막식(7월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명성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U대회의 개막식 주제는 'U are Shinning'(젊음이 미래의 빛이다). 광주와 한국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웰메이드 뮤지컬'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을 여력이 없는 광주로서는 '스케일'보다 '퀄리티'로 승부해야 하는 만큼 기대를 갖게 한다. '런던' 못지 않는 광주의 기적이 펼쳐질 '컬처버시아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편직부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 여성플라자 내일 청년여성 대상 '돌아와요 2030'

청년여성들을 위한 소통마당 '돌아와요 2030'이 4일 오후 2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전남여성플라자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전남도내 20~30대 청년여성들과 '전남에 머무르고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웹툰 작가 이아름씨의 예술이야기를

시작으로 진도농부 미스팜 광근씨의 귀농·귀어 이야기, 임화자전통식품 기업승계자 노미진씨의 음식과 기업승계 이야기, 그레이점토 대표 김수지씨의 창업이야기, 현대 삼호중공업 선주실비서 김가연씨의 이공계 이야기 등이 이어진다. 문의 061-260-7330~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기발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